

코로나19 유행과 성과 재생산 건강권

나영

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

- 특수고용직
- 콜센터
- 보건의료 인력
- 돌봄노동자
- 식당 등 서비스직
- 강사

임금
노동

- 돌봄노동
- 양육노동
- 가사노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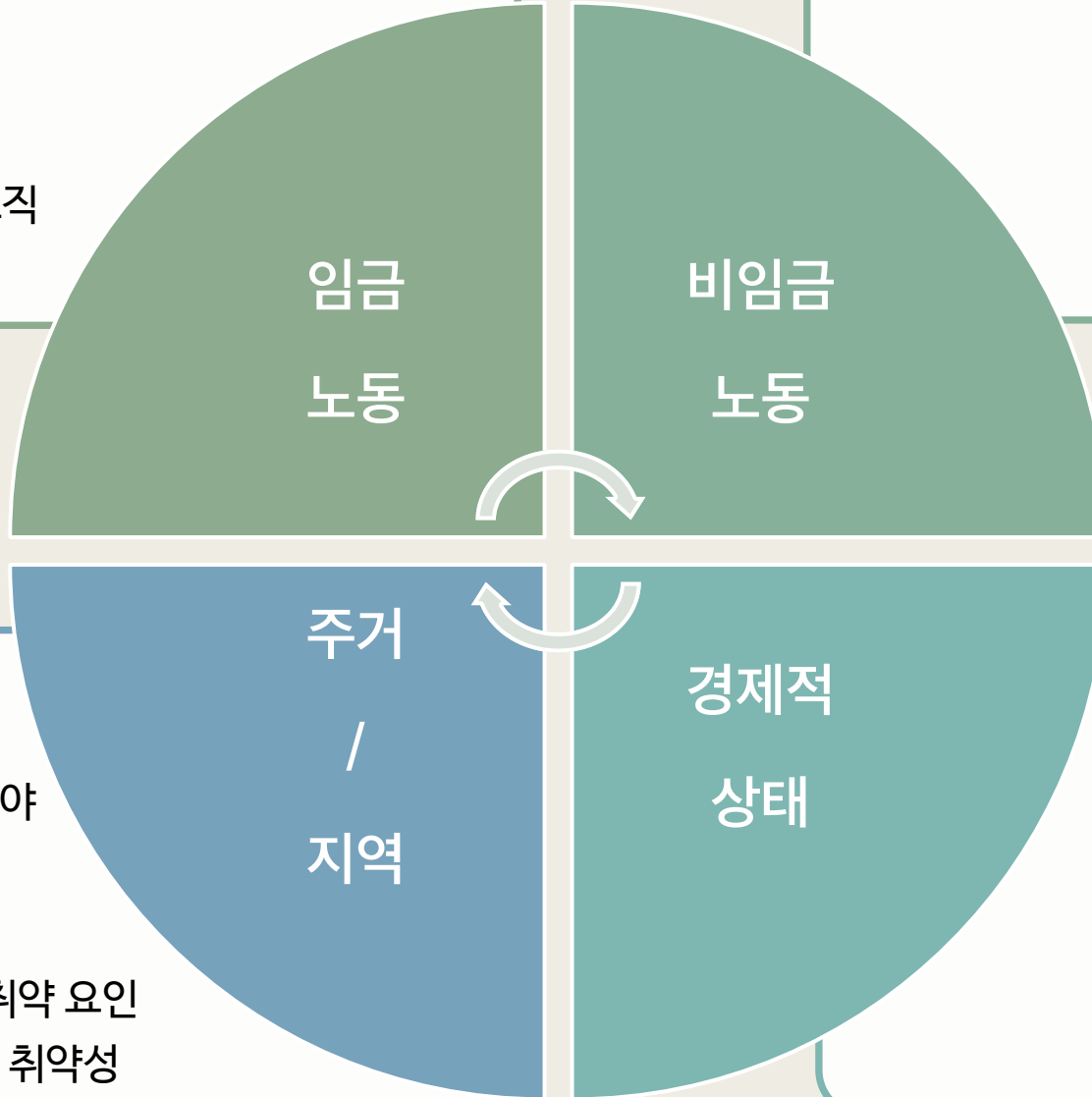
비임금
노동

-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
- > 가정폭력과 성적 요구에 취약 요인
- 지역 인프라의 취약성

주거
/
지역

- 생계비
- 돌봄/양육비
- 병원비
- 재난지원금

경제적
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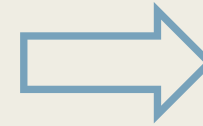


- 특수고용직
- 콜센터
- 보건의료 인력
- 돌봄노동자
- 식당 등 서비스직
- 강사

피임

임신

- 돌봄노동
- 양육노동
- 가사노동



복합상황에서의
보건의료 접근성
-응급피임약
-임신중지 병원
-임신중지 약물

-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
- > 가정폭력과 성적 요구에 취약 요인
- 지역 인프라의 취약성

출산

임신
중지

- 생계비
- 돌봄/양육비
- 병원비
- 재난지원금





[SHARE×WHW]

전세계의 재생산 정의 운동과 코로나19의 영향



한국어 자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0:01 / 23:49



YouTube



코로나19 위기 속 위협받는 여성의 성·재생산 건강권



피임도구 사용 10% 줄면
여성 4900만 명 피임 실패,
원치 않은 임신1500만 건 발생 가능

임신·신생아 관련 의료서비스 10% 줄면
산모 사망 2만8000 건,
신생아 사망 16만8000건 발생 가능



위험한 임신중지가 10%를 차지하면
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300만 건,
산모 사망 1000건 발생 가능

*2020년 4월 구트마허 연구소 보고서 내용 발췌, 저소득·중간소득 국가 기준

코로나19 시대 각국의 임신중지 지원정책

영국

임신 10주 이내 전화/온라인 상담 거쳐
집에서 약물 이용 임신중지 가능

아일랜드

임신 10주 이내 전화 상담 거쳐
집에서 약물 이용 임신중지 가능

프랑스

약물 이용 임신중지 기한을
임신 7주 → 9주 이내까지로 확대

- 청소년

- 이주 여성과 난민 여성

- 성소수자

- 형법 ‘낙태죄’ 조항의 완전한 폐지
-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행위, 공공의료의 영역으로
- 상담, 숙려기간 의무가 아니라 상담 인프라의 확대와 보장으로
- 의료인 거부권 반대
- 피임약 접근성 확대와 유산유도제 도입